

# 올 계약 만료 감독 4인... '운명의 후반기'

LG 염경엽 팬구단 눈높이 부담 SSG 이송용 작년 6위 넘어서야 삼성 박진만 가을야구가 생명줄 키움 홍원기 3년째 최하위 난감

프로야구 2025시즌 전반기가 거의 끝난다. 올해 KBO리그는 8월부터 10일까지 주중 3연전을 끝으로 전반기가 마치고 12일 올스타전을 치른다. 이후 짧은 올스타 휴식기를 보낸 10개 구단은 17일부터 하반기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시즌은 10개 구단 가운데 5개 팀 감독 계약 만료 해졌다. 그 가운데 이미 두산 베어스 이승엽 전 감독이 시즌 도중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계약 만료 사령탑'은 4명이 됐다.

2025시즌을 끝으로 감독과의 계약이 마무리되는 팀은 LG 트윈스, SSG 랜더스, 삼성 라이온즈, 키움 히어로즈다.

이강철 kt wiz 감독은 올해 정규시즌 개막전 때 더그아웃에서 취재진이 '긴장돼 보인다'고 인사하자 "나 계약 만료도 아닌데 왜..."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만큼 감독들이 계약 마지막 시즌에는 특히 성적을 더 잘 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농담이었다.

또 최근 KBO리그에서 올스타 휴식기를 전후해 감독을 해임한 사례가 몇 번 나와



염경엽 LG 감독

'올스타전 괴담'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

7월 현재 순위표를 보면 계약 만료 감독들의 '재계약 기상도'는 상당히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LG가 46승 2무 37패로 공동 2위, SSG는 42승 3무 39패로 5위에 올라 있으며 삼성은 43승 1무 41패로 7위다. 키움은 26승 3무 59패로 최하위다.

순위는 염경엽 감독이 이끄는 LG가 가



이송용 SSG 감독

장 높지만 2023시즌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구단이나 팬들의 눈높이가 올라갔고, 최근 8경기 2승 6패로 부진해 올스타 휴식기를 전후해 반등이 필요하다.

1994년 이후 29년 만에 팀의 한국시리즈 제패 갈증을 풀어준 '우승 감독'이라는 점이 염 감독에게 플러스 요소다.

이송용 감독의 SSG와 박진만 감독이 지휘하는 삼성은 5위와 7위지만 불과 0.5경기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박진만 삼성 감독

특히 이 두 팀은 공동 2위와 SSG가 3경기, 삼성은 3.5경기 차이밖에 나지 않고, 반대로 8위 NC 다이노스와의 경기 결과와 2.5경기 차이에 불과해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상위권 도약 또는 하위권 추락이 모두 가능한 위치다.

이송용 감독은 지난해 6위에서 올해 순위를 더 끌어올려야 하고, 지난 시즌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한 박진만 감독은 올해 최소한 '가을 야구'를 해야 재계약 가



홍원기 키움 감독

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 키움 지휘봉을 잡은 홍원기 감독은 올해 3년 연속 최하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성적만 보면 재계약은 꿈도 꾸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어차피 '리빌딩'이 팀의 기조였고 후반기에 안우진 북구 등 호재를 잘 엮어서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야구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종아리 경련 결장 김하성 "부상자 명단은 노 땀큐"

오른쪽 종아리 경련 증세를 보인 뒤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김하성(팀파베이 레이스)이 "정상 상태에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밝혔다.

김하성은 8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코메리카 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와의 방문 경기를 앞두고 중계 전달 방송사인 레이스 베이스볼에 이같이 말하면서 "다격 훈련과 워업 훈련을 하니 느낌이 좋아졌다. 계속 훈련하면서 경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몸 상태는 나쁘지 않다"며 "부상자 명단(II)에 오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은 김하성은 복귀전이었던 5일 미네소타 트윈스와 방문 경기에서 오른쪽 종아리를 다쳤다.

7회 초 공격 중 2루 도루에 이어 3루 도루를 시도하다가 근육 경련 증세에 시달렸다. 그는 이튿날인 6일 미네소타 전부터 명단에서 빠졌고 8일 디트로이트 전에도 출전하지 않았다.

# 월드컵 시험대 치른 영건 6인... "A매치 무대 만만치 않네"

무려 6명의 새내기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K리그와 J리그의 시험대로 삼은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을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에 함께 데려갈 경쟁력 있는 자원을 발굴할 수 있을지.

홍명보 감독은 7일 경기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동아시아컵 남자부 1차



동아시아컵 중국전 이동경 등 골 맛... 강상윤은 득점 찬스 놓쳐 홍명보 감독 "홍콩·일본 전에도 젊은 피 출전... 전력 점검 기회"

전 중국과의 경기에서 6명의 새 얼굴을 내세웠다.

김봉수(대전)는 자신의 첫 A매치를 선발로 치렀다. 김봉수는 지난해 11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5-6차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에 포함돼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다른 영광을 안았지만, 막상 그라운드에서는 밟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FIFA가 정한 A매치 기간이 아닌 탓에 K리그와 J리그로만 구성된 이번 동아시아컵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린 김봉수는 기다리던 A매치 데뷔 기회를 잡았다.

그는 3선 왼쪽 날개에 배치돼 2선의 문신

민(서울), 풀백 이태석(포항)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측면에 활로를 뚫는 역할을 담당했고 상대 수비 사이로 공을 찰려 넣으며 공격 작업을 풀어 나갔다.

또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김진규(전북)와 함께 빌드업 과정의 중심을 잡으며 좌우 수비수가 보다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변형 스리백'을 시험해 본 한국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일조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19분 주민규(대전)와 문신민 대신 이호재(포항)와 강상윤(전

북)을 투입하는 변화를 줬다.

이호재와 강상윤 역시 처음으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주민규가 골 결정력뿐만 아니라 2선으로 내려와 수비와 등을 지고 공을 지켜내며 박스 내의 동료에게 연계하는 플레이에 능하다면, 이호재는 191cm의 큰 신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와의 몸싸움에서 강점을 보이고 고공 플레이에서도 쓰임새가 있다.

다만 첫 A매치인 만큼 슛 찬스에서 다소 긴장한 모습도 보인 이호재는 남은 홍콩, 일본전에서 득점포를 넣어 확실히 눈도장을 찍어야 9월부터 이어지는 A매치에서도 계속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동경이 7일 경기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남자부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선취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맛있는우리말200



## 눈으로 읽고 입으로 즐기는 우리말!

### 일상 속 다양한 표현에 풍미를 더하다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말이지만 막상 질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답변을 내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다양한 일상의 언어를 주제 삼아 우리말 어법을 넘나들며 두서없이 우리말 산책을 떠나보려고 나섰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글이지만 누구나 다 잘 쓸 수는 없는 게 또한 글이다. 잘 쓴 글은 읽는 이에게 재미와 감동을 준다. 그래서 글은 마음으로 쓴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마음으로 써서 감동을 주는 글이라 해도 기본 어법에 따라 쓴 글이 아니라면 결코 잘 쓴 글이라고 박수를 보낼 수는 없다. 글에도 품격인 '문격(文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이들에게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필자로서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이다.

- 프롤로그 중

박재역 지음 | 272쪽 | 17,000원 | 글로벌콘텐츠